

#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경문<sup>1\*</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ssociations between Youth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Kyung Moon Chang<sup>1\*</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생 총 35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 심리 및 행동문제,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자아분화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이들의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 간,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을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부모심리통제 지각과 심리문제가 더 많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아분화가 더 높으며, 행동문제가 더 많았다.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모심리통제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분화는 심리 및 행동문제를 높이고, 부모심리통제는 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행동통제와 심리 및 행동문제 간을 완전매개, 부모심리통제와 심리 및 행동문제 간, 그리고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youths' perceived parental control,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and self-differentiation in a sample of 35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ex differences in these variables, and the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self-differentiation on youth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youths'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and betwee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also investigated. Some sex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were found. Youth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influenced by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were significant either complete or partial way.

**Key Words** : Behavioral, Psychological Problem, Parental control, Self-differentiation, Mediating effects

###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전환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과 자신감의 결여로 적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며, 일탈적 행동문제(예컨대, 무단결석, 약물사용, 가출 등)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업 중 하나는 부모와 분리된 자기 자신에

본 논문은 2011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 Moon Chang(Sookmyung Women's Univ.)

Tel: +82-2-710-9698 email: [chang006@sm.ac.kr](mailto:chang006@sm.ac.kr)

Received January 16, 2014

Revised February 4,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확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자아분화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이 정신 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분리를 통해 개체화(또는 개성화)되어 있는 정도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은 자아분화를 통해 어머니와의 공생관계, 또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융합상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일관된 가치나 신념, 그리고 생활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목표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1]. 따라서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적응이나 역기능적 부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성격적 변인으로 간주 되는데, 자아분화의 발달로 개인이 분명한 자아감을 갖게 되면, 타인이나 환경으로 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역기능적 부적응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2,3].

자아분화의 발달은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4,5].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취하는 양육방식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부모양육행동을 ‘부모지지’와 ‘부모통제’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부모통제를 다시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두 차원으로 세분화해서 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6,7]. 이 중, ‘심리통제’는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아동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통제’는 부모가 확고하고 일관된 규칙에 따라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8]. Steinberg는 부모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행동통제는 아동의 충동통제나 사회적 책임을 길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반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심리적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신뢰나 자신감의 결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 이 주장을 적용해 보면,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높이는 반면, 심리통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방해할 것으로 추측되는 한편, 부모의 심리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 및 행동문제를 높이는데 반해, 행동통제는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자아분화와 부적인 상관에 있으며[2], 개방적인 부모-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를 높인

다고 하여 자녀의 자아분화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8].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개념화하여 부모통제가 자녀의 자아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의외로 드물며, 특히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분화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19].

한편, Steinberg이 후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통제가 자녀의 우울성향, 정서적 고통, 부정적 자기관, 또는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부모통제가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해 왔다[7, 10-17].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의 관심은 대부분 모(母)의 심리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되어 있어 자녀양육에서의 부(父) 통제의 영향이나 부모의 행동통제가 자녀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한 연구에서 이런 측면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선행연구결과들과 관련이론을 종합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분화나 적응과 관련되며,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적응 간에 자아분화가 매개작용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9,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이는 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부모통제와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에 자아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이나 심리 및 행동문제, 그리고 자아 분화 수준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은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 간, 그리고 이들의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을 매개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과 인천지역 소재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총 355명이 참가하였다. 연구참가자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71명(48%), 여학생이 184명(52%)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70명(47.9%), 고등학생이 185명(52.1%)이었다. 응답자의 92%(326명)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부모 중 한 분과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0명(5.6%) 정도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자아분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1,22]. 이 척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아분화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그리고 가족퇴행이라는 5가지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방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였고, 역 채점 문항들을 역 채점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82$ 였다.

#### 2.2.2 부모의 심리통제

Shek(2006)이 자녀에 대한 부와 모의 전반적인 심리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중국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척도(The Chinese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CppCS)와 중국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The Chines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CMpC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23]. 이 척도는 부나 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통제행동(즉, 개인적 감정이나 경험의 불인정, 언어적 표현의 강요, 인신공격, 애정철회, 지나친 단속 등)에 대해 각 2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항상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을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등이며, 응답형식은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척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실제로 똑같은 문항이지만, 청소년이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 정도와 어머니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의 정도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부와 모 각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점수를 합하여 부모의 심리통제 점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Shek(2006)이 보고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89$ 와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계산한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1$ 과  $.88$ 로 이와 비슷하였다.

#### 2.2.3 부모의 행동통제

본인의 행동을 자신의 부모가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하도록 한 총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우리 아빠/엄마는 방과 후에 내가 어디에 가고, 뭘 하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밤에 친구랑 외출을 한다면,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어디에 가는지 잘 아신다." 등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따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형식은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였다. 점수는 부와 모 각각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행동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점수를 합하여 부모의 행동통제 점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Stattin & Kerr(2000)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행동(monitoring)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로서,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한 이들의 연구에서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6$ 이었으며[24], 본 연구에서 계산한 부와 모의 행동통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77$ 과  $.84$ 였다.

#### 2.2.4 심리 및 행동문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자기보고 (the Child Behavior Checklist-Youth Self-Report (Achenbach & Edelbrock, 1981)의 문항들 중 심리문제를 재는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다" 등 3문항과, 행동문제를 재는 "나는 음주, 흡연, 또는 약물(질병치료 목적 제외)을 사용한다",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나는 남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 그리고 "나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4문항을

사용하였다[25]. 이 중 심리문제를 재는 3문항과 행동문제를 재는 4문항 중, 앞 3문항은 Barber, Olsen, & Shagle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 측정에 쓰였던 문항들을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며[21], 행동문제를 재는 마지막 문항인 “나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본 연구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심리 및 행동문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84$ 와  $.74$ 였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서울과 인천지역 소재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을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총 4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377부를 회수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355부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상관분석(Pearson's 'r'),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분석 등이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6].

## 3.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통제 지각, 심리 및 행동문제,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이나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 그리고 자아분화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부모의 심리통제는 부의 심리통제와 모의 심리통제를 합한 값이

며, 부모의 행동통제도 부의 행동통제와 모의 행동통제를 합한 값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 심리 및 행동문제,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에서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들보다 부모의 심리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t=3.44, P<.01$ ), 심리문제도 약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t=2.24, P<.05$ )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43, p<.01$ ), 자아분화수준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22, p<.05$ )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가 이들의 심리문제나 행동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고,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 모두에 부모의 행동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의 심리통제와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의 심리문제는 부모의 심리통제( $\beta=-.16, t=-2.77, p<.01$ ) 보다는 자아분화( $\beta=.29, t=5.05, p<.001$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자아분화( $\beta=.18, t=3.14, p<.01, p<.01$ ) 보다는 부모의 심리통제( $\beta=-.32, t=-5.62, p<.001$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자아분화는 심리문제를 높이는데

[Table 1]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trol,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self-differentiation level

	Sex	n	Mean	S.D.	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oys	171	42.67	11.18	3.44**
	Girls	184	38.59	11.14	
Parental behavioral control	Boys	171	26.57	5.38	-1.28
	Girls	184	27.34	5.87	
psychological problems	Boys	171	12.22	4.03	2.24*
	Girls	184	11.28	3.92	
Behavioral problems	Boys	171	20.33	4.05	-3.43**
	Girls	184	21.63	2.95	
Self-differentiation	Boys	170	102.17	12.07	-.22*
	Girls	183	104.84	11.11	

\* $p<.05$ , \*\*  $p<.01$

[Table 2] Influences of adolescent'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self-differentiation level on their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D. V.	Predictor	B	t	R <sup>2</sup>	Δ R <sup>2</sup>	F
psychological problems	Self-differentiation	.29	5.05***	.16	.15	34.37***
	Parental psy. con	-.16	-2.77**			
Behavioral problems	Parental psy. con	-.32	-5.62***	.20	.18	43.02***
	Self-differentiation	.18	3.1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1.Self-differentiation	-	-.54***	.28***	.38***	.35***
2.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20***	-.33***	-.42***
3.Parental behavioral control			-	.20***	.15**
4.psychological problems				-	.26***
5.Behavioral problems					-

*p* < .01, \*\*\**p* < .001

반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심리문제와 행동문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상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의 상관계수를 보면,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은 부모의 심리통제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한 반면, 부모의 행동통제나 심리 및 행동문제와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통제는 청소년의 심리( $r = -.33, p < .001$ ) 및 행동문제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한데 반해( $r = -.42, p < .001$ ),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심리( $r = .20, p < .001$ ) 및 행동문제( $r = .15, p < .01$ )와 비교적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에도 높지는 않지만 정적 상관( $r = .26, p < .001$ )이 유의하였다.

### 3. 청소년의 부모통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 간, 그리고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통제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에, 그리고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에 이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매개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26]. 분석절차는 3단계로 요약된다. 먼저, 1단계에서 (잠재적)매개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한지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잠재적)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하며, 3단계에서는 우선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분석에서보다는 3단계분석에서 감소하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완전매개’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로 구분된다. 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먼저, 자아분화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을 매개하는지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자아분화가 이들의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을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함께 정리하였으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통제와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에 자아분화가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의 심리통제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통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심리·행동문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분석에서,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아분화( $\beta = .54, t = 12.16, p < .001$ )와 심리 및 행동문제(심리:  $\beta = .33, t = 6.51, p < .001$ ; 행동:  $\beta = .42, t = 8.70, p < .001$ )를 각각 낮추었고, 3단계분석에서는 자아분화가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심리:  $\beta = .29, t = 5.05, p < .001$ ; 행동:  $\beta = .18, t = 3.14, p < .01$ ), 동시에 부모의 심리통제가 심리·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youths'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and behavioral problems.

Step	Predictor	D. V.	B	t	R <sup>2</sup>	F	Condition
1	Parental psy. con.	Self-differentiation	-.54	-12.16***	.30	147.82***	satisfied
2	Parental psy. con.	psychological pro.	-.33	-6.51***	.11	42.39***	satisfied
3	Parental psy. con.	psychological pro.	-.16	-2.77**	.16	34.37***	satisfied (partial mediation)
	Self-differentiation		.29	5.05***			
1	Parental psy. con.	Self-differentiation	-.54	-12.16***	.30	147.82***	satisfied
2	Parental psy. con.	Behavioral pro.	-.42	-8.70***	.18	75.77***	satisfied
3	Parental psy. con.	Behavioral pro.	-.32	-5.6***	.20	43.02***	satisfied (partial mediation)
	Self-differentiation		.18	3.14**			
1	Parental beh. con.	Self-differentiation	.28	5.51***	.08	30.32***	satisfied
2	Parental beh. con.	psychological pro.	.19	3.61***	.04	13.05***	satisfied
3	Parental beh. con.	psychological pro.	.08	1.64	.15	31.46***	satisfied (complete mediation)
	Self-differentiation		.36	6.98***			
1	Parental beh. con.	Self-differentiation	.28	5.51***	.08	30.32***	satisfied
2	Parental beh. con.	Behavioral pro.	.15	2.84**	.02	8.07**	satisfied
3	Parental beh. con.	Behavioral pro.	.06	1.06	.13	25.65***	satisfied (complete mediation)
	Self-differentiation		.34	6.50***			
1	Psychological pro.	Self-differentiation	.38	7.74***	.15	59.94***	satisfied
2	Psychological pro.	Behavioral pro.	.26	5.08***	.07	25.81***	satisfied
3	Psychological pro.	Behavioral pro.	.14	2.65**	.14	29.02***	satisfied (partial mediation)
	Self-differentiation		.30	5.59***			

\*\*  $p < .01$ , \*\*\*  $p < .001$

(심리:  $\beta = -.33$ 에서  $\beta = -.16$ 으로; 행동:  $\beta = -.42$ 에서  $\beta = -.32$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에 자아분화가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의 행동통제와 이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 간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간접적으로 심리·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단계와 2 단계분석에서, 부모의 행동통제는 자아분화( $\beta = .28$ ,  $t = 5.51$ ,  $p < .001$ )와 심리 및 행동문제(심리:  $\beta = .19$ ,  $t = 3.61$ ,  $p < .001$ ; 행동:  $\beta = .15$ ,  $t = 2.84$ ,  $p < .01$ )를 각각 높이고, 3 단계분석에서는 자아분화가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심리:  $\beta = .36$ ,  $t = 6.98$ ,  $p < .001$ ; 행동:  $\beta = .34$ ,  $t = 6.50$ ,  $p < .001$ ), 부모의 행동통제가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심리:  $\beta = .08$ ,  $t = 1.64$ ,  $p = .10$ ; 행동:  $\beta = .06$ ,  $t = 1.06$ ,  $p = .29$ )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에 개인

의 자아분화가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에 부분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과정을 보면, 1 단계와 2 단계에서 심리문제는 자아분화( $\beta = .38$ ,  $t = 7.74$ ,  $p < .001$ )와 행동문제( $\beta = .26$ ,  $t = 5.08$ ,  $p < .001$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3 단계분석에서는 자아분화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 $\beta = .30$ ,  $t = 5.59$ ,  $p < .001$ ) 동시에 심리문제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2 단계에서보다 줄어드는 것( $\beta = .26 \rightarrow \beta = .14$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분화는 심리문제와 행동문제 간에 부분매개작용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문제는 이들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심리문제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심리문제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행동문제를 높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문제가 자아분화를 높임에 따라 간접적으로 행동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심리 및 행동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양육에서 부모의 행동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8,9,16,17],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 (psychological problems)를 높이고, 행동통제는 심리 및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s)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높으면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가 모두 적는데 반해, 부모의 행동통제가 높으면 심리 및 행동문제가 모두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들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연령이나 이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15,27] 그러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Wang과 동료들은 이러한 영향이 평균 12세경 나타났다고 보고했지만, 우리나라 중, 고생을 대상으로 개인영역에서의 부모통제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고,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한 박영신의 연구에서는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의 관련성이 고등학생에서만 나타났지 중학생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나라나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15,12]. 한국사회는 가족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극심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과도한 간섭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참가자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 평균점수를 보면, 부모의 심리통제는 척도 상 최고점이 80점인데 전체평균이 40.55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행동통제도 척도 상의 최고점이 40점이지만 전체평균이 26.97로써 이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부모의 심리통제가 높으면 청소년 자녀의 자아분화가 낮고, 부모의 행동통제가 높으면 자아분화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행동통제는 자녀의 자아발달을 돕지만,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녀의 자아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해온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2,7,18,21,28].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심리문제( $r=.38, p<.001$ )와 행동문제( $r=.35, p<.001$ )가 모두 많을 뿐 아니라, 심리문제가 많을수록 행동문제도 많은 것으로( $r=.26, p<.001$ )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문제나, 공격성, 학교생활 부적응 등 행동문제와 연결된다고 하여 자아분화 수준과 심리 및 행동문제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2,12,29,30]. 이러한 결과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추측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청소년들의 자아분화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일 가능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되었던 심리 및 행동문제의 문항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척도 상 최고점이 144점인데 전체 평균이 103.56으로 대체로 높지 않았으며, 심리문제는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그리고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행동문제를 재기 위해 사용한 4문항도 “나는 음주, 흡연, 또는 약물(질병치료 목적 제외)을 사용한다”,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나는 남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 그리고 “나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 척도의 문항내용을 달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부모통제와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 간, 그리고 심리와 행동문제 간에 대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분석 과정을 보면(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통제는 직접적으로, 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낮추어서 그에 따라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부분매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아분화를 높이고 그에 따라 간접적으로만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를 높이는 것으로(완전매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여기서 부모의 심리통제가 심리 및 행동문제를 낮추고, 행동통제가 심리 및 행동문제를 높인다고 하여 부모의 행동통제보다 심리통제가 청소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통제는 청소년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숙한 발달을 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격변인인 자아분화의 발달을 방해하여 단기적으로 심리·행동문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는 타당하기 때문이다 [4,5]. 또한, 부모의 행동통제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심

리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자녀에게 행하는 행동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분화를 높이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문제가 높아지는 것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 및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나 이론적 설명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청소년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이 자아분화를 높이는 쪽과 심리 및 행동문제를 낮추는 쪽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자는 이를 경계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비교적 낮았고, 심리 및 행동문제의 측정결과도, 척도 상 가능한 점수범위가 각각 3-18점과 4-24점이었는데 심리문제의 평균은 11.73점, 행동문제의 평균점수는 21.00점 정도로 나타나 행동문제는 약간 많지만 심리문제는 별로 많지 않았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심리 및 행동문제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내용이 심각한 범죄수준의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이러한 심리 또는 행동적 일탈은 청소년기의 자아분화의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보다 지혜로운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분화를 방해하는 심리통제는 지양하고, 적절한 수준의 행동통제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양육행동의 방향임을 제안한다. 더불어 후속연구에서 장기 종단적 접근을 통해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심리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밝혀질 것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의 양이나 참가자들의 지역적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후속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References

[1] M. Bowen, "Theory in th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 (Ed.),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New York, 1976.

- [2] K. M. Chang, "The influences of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5, No. 1, pp. 89-108, 2011.
- [3] L. M ,Nancy, A. G. Paul Jr., "Stress, coping,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 test of bowen theor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Vol. 26, No. 3, pp. 319-335, 2004.  
DOI: <http://dx.doi.org/10.1023/B:COFT.0000037918.53929.18>
- [4] P. T. Davies, E. M. Cummings,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6, No. 3 pp. 387-411,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16.3.387>
- [5] M. E. Kerr, M. Bowen, "Triangles and Stepfamilies" in *Triangles, a Bowen Family Systems Perspective*. Peter Titelman, Ed. New York: Haworth Press, 2005.
- [6] K. M. Chang,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 No. 1, pp. 165-179, 2007.
- [7] Y. J. Chyung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5, No. 6, pp. 205-223, 2004.
- [8]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6, pp. 3296-3319,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 [9] L. Steinberg,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10] H. I. Kim, H. S. Do, Y. K. Chee, "The effects of parental control,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2, No. 4, pp. 15-36, 2011.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1.32.4.15>
- [11] K. M. Chang, "The influence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the



-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ir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2, pp. 243-261, 2011.
- [12] Y. S. Park, "Parental control of adolescents' personal domain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No. 1, pp. 51-65, 2010.
- [13] E. K. Lee, S. Y. Park,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s and depression on the self 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6, pp. 87-106, 2010.
- [14] S. Y. Park, E. K. Lee, J. U. Song, "The effects of two typ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 No. 5, pp. 65-78, 2008.
- [15] Q. Wang, E. M., Pomerantz, H. Chen,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Vol. 78, No. 5, pp. 1592-1610,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467-8624.2007.01085.x>
- [16] R. A. Bean, B. K. Barber., D. R. Crane,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7, No. 10, pp. 1335-1355, 2006.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X06289649>
- [17] B. K. Barber,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18] I. J. Che,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No. 3, pp. 611-628, 2007.
- [19] Y. E. Moon, H. J. Bang, "The relationships among birth order,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7, No. 1, pp. 53-72, 2012.
- [20] J. G. Smetana, C. Daddis,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Vol. 73, No. 2, pp. 563-580, 2002.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424>
- [21] B. K Barber, J. A. Olsen, S. C. Shagl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4, pp. 1120-1136, 1994.  
DOI: <http://dx.doi.org/10.2307/1131309>
- [22]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a Bowen Family Systems Perspective" Unpublished Ph. D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Korea, 1989.
- [23] D. T. Shek, "Assessmen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kong,"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16, 4, pp. 382-391, 2006.  
DOI: <http://dx.doi.org/10.1177/1049731506286231>
- [24] H. Stattin, M. Kerr,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Vol. 71, No. 4, pp. 1072-1085, 2000.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210>
- [25] T. M. Achenbach,, C. S. Edelbrock,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188, Vol. 46, No. 1, pp. 1-82, 1981.
- [26] R. M. Baron, D. A. Kenne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7] T. Lins-Dyer, "Mexic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 social domain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03.
- [28] G. S. Pettit, R. D. Laird, K. A. Dodge, J. E. Bates, M. M. Criss,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2, pp. 583-598, 2001.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298>
- [29] G. S. Kim, Y. S. Jeon,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4, pp. 79-94, 2009.
- [30] H. S. Shim, K. Y. Chung, "The impacts of children's self-differentiation on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1, pp. 285-297, 2007.

장 경 문(Kyung Moon Chang)

[정회원]



- 2000년 1월 :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박사(Ph. D), 교육심리전공
- 200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